



김민석 국무총리, 육군 제9보병사단 방문

- 전방 육군 경계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수),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만우리 중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했다.
 - * (참석) 국방부 차관, 육군 제9보병사단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운영실장 등
-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전방부대 방문으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육군 제9보병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성공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한 별칭 ‘백마부대’로서, 평시 임진강 및 한강에 대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강안 경계작전 부대이다.
- 김 총리는 만우리 중대 관측소 및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철책과 소초를 둘러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특히, 임진강과 한강을 포함하여 강안을 경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월북 시도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 전복된 민간 어선을 식별하여 어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또한, 김 총리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 끝으로, 김 총리는 장병들이 든든하게 전방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 나라를 위한 뜻과 사회에 돌아가서 일하는 꿈도 많이 키우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 해서 연말연시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박영철 (044-200-2123)
		담당자	중령	정지연 (044-200-2126)

